

S자 결장에 생긴 관상선종의 편평상피화생

- 1 증례 보고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강수민* · 박원서 · 김우호 · 김용일

Squamous Metaplasia in Tubular Adenoma of Sigmoid Colon

- A case report -

Soo Min Kang, M.D., Weon Seo Park, M.D., Woo Ho Kim, M.D. and Yong Il Kim, M.D.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occurrence of squamous metaplasia(morule) in colorectal mucosa and adenocarcinoma, although rare, has been well documented. In contrast, very little mention has been given to mature squamous cells seen in colorectal polyps or adenomas.

A 42-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 2-month history of diarrhea and melena. Proctosigmoidoscopy revealed a 4 cm-sized polypoid tumor 20 cm above the anal verge. Colonoscopic biopsy showed tubular adenoma, and a segmental resection of sigmoid colon was done. Microscopically, the tumor was a classical tubular adenoma containing multiple solid nests of squamous cells scattered only in the neoplasm; the squamous nests were generally small, and some showed direct continuity with adenomatous glands. The squamous cells were keratinizing and had regular nuclei with no mitotic activity.

The importance of this phenomenon lies in its pathologic recognition, and the findings suggest that awareness of this rare occurrence in colorectal polyps should avert such overdiagnosis, and consequently prevents unnecessary radical surgery. (Korean J Pathol 1993; 27: 663-665)

Key Words: Squamous metaplasia, Tubular adenoma, Colon

대장 점막의 편평상피화생은 잘 알려진 현상이지만 매우 드물며¹⁾, 특히 대장 선종에서 편평상피를 관찰하였다는 보고는 드물다^{2,3)}. 대장의 편평상피화생에 관한 기록은 1979년 Williams 등⁴⁾이 편평상피화생을 보이는 대장용종 3예를 보고한 것이 최초이며 우리나라 문헌에는 보고된 바가 없다. 특히 대장 선종에서 보이는 편평상피의 존재는 선극세포종이나 선편평상피암종으로 잘못 불러 과잉치료의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⁵⁾. 저자들은 대장에 생긴 1개의 관상선종이 부분적으로 편

평상피화생을 보이는 1예를 관찰하였기에 선극세포종 등으로의 과잉진단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감별을 목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환자는 42세여자로서 2개월전부터 시작된 설사와 혈변을 주소로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다. 대장내시경 검사상 항문으로부터 20 cm 상방의 S자 결장에 약 4 cm 직경의 분엽상 돌출 종괴가 관찰되어 내시경적 생검을 시행하였다. 병변은 전형적인 관상선종으로 진단되었으며, 뒤이어 S자 결장의 구획 절제술이 시행되었다. 환자의 과거력상 제왕절개술을 2회 받은 적이 있었고, 결핵, 고혈압, 당뇨의 병력은 없었다. 환자의 가족력상 위장관계 종양이나 다른 장기의 종양은 없었다.

접 수: 1993년 5월 8일, 게재승인: 1993년 8월 19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우편번호 110-74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용일

*현주소: 경남 진주 고려병원 병리과



Fig. 1. Gross appearance of pedunculated and conglomerated polypoid mass in the sigmoid colon. The surface in the center is partly hemorrhagic and its mucosal surface is roughened. The resection margins are clear and malignant change is not suspected.

내강으로 돌출한 종양의 크기는 3×4 cm 였고 소위 집족형(集簇型) 선종상을 보였으며 장간막 경계를 따라 위치하고 있었다. 종양의 일부 표면은 암적갈색이었으며 괴사나 괴양은 없었다(Fig. 1). 현미경적으로 종양은 전형적인 관상선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상피세포의 이형성은 없었으나 여러군데에서 편평상피화생이 관찰되었다(Fig. 2). 이러한 편평상피화생은 종양 주위의 정상상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선종내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종양의 선구조와 서로 이행되는 부분도 있었다. 편평상피의 세포분열이나 이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Fig. 3).

비종양성 선상피증 편평상피 구조가 가장 흔히 관찰되는 부위는 자궁내막이며, 대장 점막 등 다른 장기에서는 드물다. 선종양 중에서는 자궁내막선암종에서 가장 흔하지만 간, 담낭, 췌장, 위, 충수돌기, 그리고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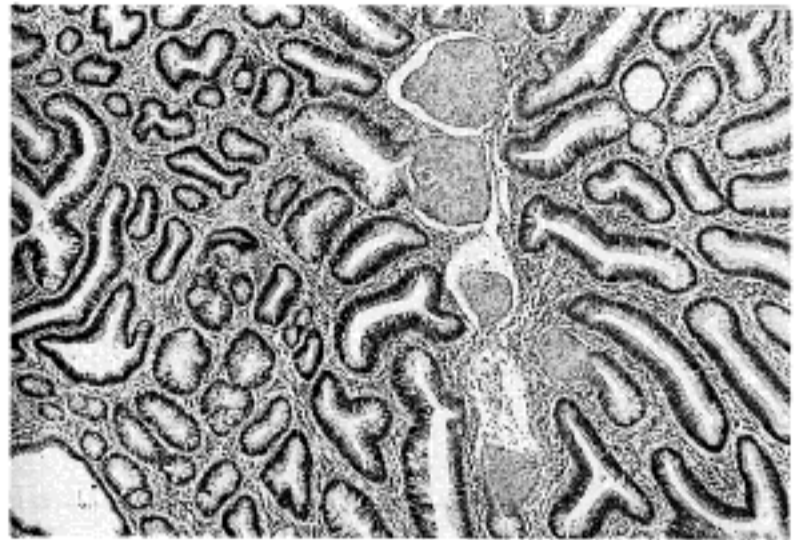


Fig. 2. Photomicrograph of tubular adenoma. Several squamous cell morules are seen in the center of the aden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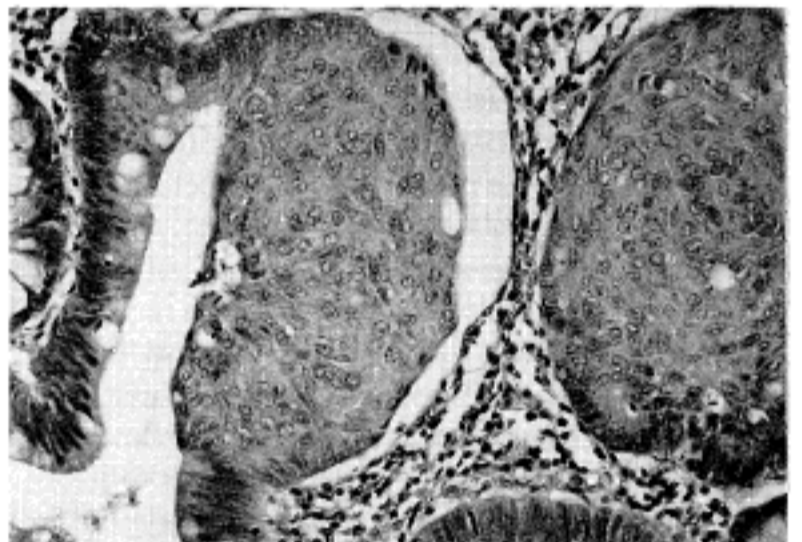


Fig. 3. Solid nests of squamous cells with some in direct continuity with adenomatous glands. These structures partially involve or entirely occupy individual tubules. The constituent cells exhibit bland cytologic features and ill-defined cell borders.

장의 원발성 선암종에서도 드물게 관찰된다. Dutra⁹⁾는 자궁내막증식증에서 특이한 세포 군집을 관찰하고 그 삼차원적 모양이 오디를 닮아서 morule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후 이러한 구조는 자궁내막의 여러가지 다른 병변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전자현미경상 편평상피세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후 대장 종양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관찰되었다. 비종양성 선조직에서 보이는 편평상피 성분은 만성염증이나 기계적 자극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악성 선종양에서의 조직발생학적 기전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몇가지 제시된 가설로는 첫째, 대장점막에 있는 여러 상피세포형로 분화가 가능한 다원성세포(totipotential cell)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둘

째, 이소성 편평상피 군집의 성장, 셋째, 기존의 비종양성 선상피의 편평상피화생, 넷째, 기존의 선암종의 편평상피화생이나 편평상피 분화, 다섯째, 혈관내피의 국소적 증식 등이 있다⁶⁾. 그외에도 Williams등⁴⁾은 이러한 세포들이 이형성 선종양 상피에서 다양한 분화양상을 보일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lmagro등⁶⁾ 및 Chen⁷⁾의 증례와 저자들의 증례의 경우 상피세포의 이형성이나 국소침범의 근거가 전혀 없고 편평상피 군집이 종양의 선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상 선종의 선상피에서 편평상피화생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장 선암종은 기존의 선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장의 편평상피암종도 같은 기전에 의해 선암종에 존재하는 편평상피화생조직에서 발생한다고 추측된다. Almagro등⁶⁾은 선암종의 일부에서 편평상피화생이 관찰된 것을 토대로 대장 선종의 편평상피화생이 편평상피암종, 선극세포종, 선편평상피암종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Williams등⁴⁾은 대장선암종과 편평상피암종의 해부학적 분포뿐 아니라 성별과 나이의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선종에 생긴 편평상피화생이 원발성 편평상피암종의 선행병변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계속해서 증례의 축적과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hen⁷⁾은 대장선종에서 편평상피세포성분이 관상 혹은 체모양으로 보여 악성으로 진단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우 드물기는 하나 병리의사들이 대장 선종에서 생기는 편평상피화생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여 이를 선암종 또는 비정형 선종으로 과잉진단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과잉치료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Cabrera A, Pickren JW. Squamous metaplasia and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restosigmoid. *Dis Col Rectum* 1967; 10: 288-97.
- 2) Bansal M, Fenoglio CM, Robboy SJ, King DW. Are metaplasia in colorectal adenomas truly metaplasia? *Am J Pathol* 1984; 115: 253-65.
- 3) Sarlin JG, Mori K. Morules in epithelial tumors of the colon and rectum. *Am J Surg Pathol* 1984; 8: 281-5.
- 4) Williams GT, Blackshaw AJ, Morson BC. Squamous carcinoma of the colorectum and its genesis. *J Pathol* 1979; 129: 139-47.
- 5) Dutra F. Intraglandular morules of the endometrium. *Am J Pathol* 1959; 31: 61-5.
- 6) Almagro UA, Pintar K, Zellmer RB. Squamous metaplasia in colorectal polyps. *Cancer* 1984; 53: 2679-82.
- 7) Chen KTK. Colonic adenomatous polyp with focal squamous metaplasia. *Hum Pathol* 1981; 12: 848-9.